

폴 리콴르의 『시간과 이야기』를 읽고

임 현 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하나의 책을 선택하여 읽을 때 많은 경우 우연적인 만남이거나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발동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와 달리 리콴르의 『시간과 이야기』는 번역본으로 따져 14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독자로서 각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텍스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책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따져 묻는 일은 학문적인 영역주의에 익숙한 필자의 촌스러움 탓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철학과 문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이 책의 활약상이 매우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철학자가 쓴 것이어서 철학에 속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문학이나 역사학 중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부류의 책을 누가 읽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섰지만 이 책이 학계의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책을 놓고 수많은

고민의 나날을 흘러보냈으리라는 심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필자는 이 글을 리콰르의 저서를 접하게 되었던 동기부터 밝히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펼치고 있는 관심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위상 및 가치와 관련된 좌표 설정은 용이하지 않다. 우선은 필자의 고백을 출발점으로 독자의 세계 어딘가에 닻줄을 내려 이 책을 잠시 묶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책을 읽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신화와 역사’의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신화와 역사’는 신화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신화와 역사’라는 용어에는 역사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신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혹은 적어도 역사에 대한 참조를 통하여 신화에 대한 좀 더 나은 인식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신화학 나름의 자의식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러한 자의식이 아무런 근거 없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신화와 함께 짝을 이룰만한 것이 역사뿐이겠는가. ‘신화와 정치’라든지 ‘신화와 예술’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신화의 파트너들을 구해서 신화학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그럼에도 역사를 신화의 다른 짝들에 비해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고 싶은 까닭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임을 굳이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양자가 발생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리콰르 자신도 인정한 바 있듯이 역사는 신화와와의 단절을 통해서 신화의 진리성을 거절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신화에서 역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 둘 사이에 말끔한 단면을 드러낼 수 없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문명의 축이 오래 전에 신화의 시대에서 역사의 시대로 옮겨졌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신화학자들에게 신화와 역사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모순과

대립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엘리아데 같은 신화학자가 시간과 역사의 공포를 언급하면서 신화적 시간을 상호 대칭의 맞은편에 배치시켰던 점만 상기해보더라도 그동안 신화와 역사가 얼마나 동떨어진 것으로 취급되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 필자가 리콥르의 『시간과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인 데는 이 책이 신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종전과는 다른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콥르의 저서가 지닌 어떤 측면이 필자의 판단에 호응했던 것일까.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 밝혀두지만 이 책은 신화에 관한 책은 아니며, 신화와 역사의 관계를 천착하는 책은 더 더욱 아니다. 이 책이 ‘신화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은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책이 ‘허구와 역사’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신화와 역사’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오늘날 근대인의 눈으로 보면 허구와 신화의 거리는 허구와 역사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

리콥르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허구와 역사는 일정한 지점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이다. 허구는 꾸며낸 이야기이고,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하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콥르의 이와 같은 주장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역사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콥르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과학인가 예술인가, 혹은 역사의 문학적성 여부와 관련된 논쟁은 역사철학의 전통적인 주제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리콥르의 문제의식 자체는 매우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리콥르가 왜 어떤 맥락에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여 이와 같이 오래된 문제를 새롭게

게 가다듬고 있는가, 다시 말해 리콥르 고유의 독창성은 무엇인지 포착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리콥르가 허구와 역사의 교차를 주장하는 근거부터 밝히면, 이 둘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의미’의 세계를 개방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여기서도 리콥르는 평소 해석학자다운 면모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구와 역사의 관계를 ‘의미’의 문제와 관련시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허구는 비록 실재하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실재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역사는 허구와 달리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고 이들 사이에서 인과론적 맥락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는 사건들 사이의 인과론적 설명을 시도하기 이전에 이미 사건을 ‘~처럼 봄’으로써 혹은 ‘~처럼 그림’으로써 사건 자체 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 진실을 은연중 드러낸다. 비실재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허구와 역사가 서로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둘이 공히 의미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허구와 역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이 둘은 환상을 이용한 의미의 창출인가 혹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매개로 은폐된 의미를 드러내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텍스트 너머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이다.

리콥르가 허구와 역사의 관계를 대립에서 수렴으로, 나아가 수렴을 넘어 교차와 만남으로 역전시킨 배경에는 이야기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는 시간과 더불어 이 책을 이끌어어나가는 핵심 키워드이다. 그는 허구와 역사를 다 함께 이야기로 규정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어떤 지점에서 일치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리콥르는 『시간과 이야기』 서문에서 자신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지를 ‘의미’의 문제와 관련시켜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원래 이 책은 그 이전에 출판된 『살아 있는 은유』와 동시에 기획된 것으로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가 산출되는지를 밝히려는 의도로 저술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의미의 탄생,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미론적 혁신’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은유와 이야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중 이야기가 의미의 생산 기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원동력은 줄거리를 구성하는 능력에서 비롯한다. 리콰르는 이야기의 플롯 차원, 다시 말해 줄거리 구성 능력을 “다양하고 잡다한 사건들을 전체적이고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 속에 포괄하고 통합”하는 작용으로 규정한다. 간단히 “이질적인 것들의 중첩”으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이와 같은 이야기의 기능은 은유가 말들의 충돌과 부조화를 거쳐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창출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이야기 역시 상호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모순적이기도 한 다양한 사건들을 동일한 담론의 층위에 배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낳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야기에 대한 리콰르의 기본 입장은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데이비드 카(David Carr)가 지적한 바 있듯이,¹⁾ 리콰르는 이야기 연구의 권위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리콰르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시간과 이야기』에는 이들의 연구 성과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연구자들로는 루이스 밍크(Louis O. Mink),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삶 속에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쳐 역사철학 분야에서 역사의 이야기 구성 차원을 깊이 있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이비드 카에 따르면 리콰르와 이들의 차

1) David, Carr(1986), *Time, Narrative, and History*,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p. 7-16.

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루이스 밉크와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 이야기에서 이야기와 이야기가 묘사하고자 하는 실재 세계 사이에 불연속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이야기는 실재 세계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을 부과함으로써 실재 세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리코르르의 삶은 부정형이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삶은 밉크와 화이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통하여 형태를 부여 받기 이전에 나름의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카는 이들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공통의 기반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리코르르의 이야기되기 이전에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삶과 그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재현하는 관계가 아님을 인정함으로써 결국에는 밉크와 화이트가 걸어갔던 길을 뒤쫓아 갔다는 것이다.²⁾

하지만 필자는 데이비드 카가 이야기에 대한 리코르르의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데이비드 카는 이야기의 플롯은 삶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 즉 이야기는 삶 속의 내재한 플롯을 재구성할 뿐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리코르르가 다른 이야기 이론가들과 보인 차별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리코르르의 이야기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미메시스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의 플롯은 행위의 모방임을 선언했을 때, 그와 같은 미메시스 개념이 행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구성력을 지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엇을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리코르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메시스 개념을 수용한다. 다만 그는 여기에 자신이

2) David, Carr, "Review Essays: TEMPS ET RÉCIT. Tome I. By Paul Ricoeur. Paris: Éditions du Seuil, 1983, p. 322.", *History and Theory*, vol. XXIII, num. 3, 1984, p. 366.

고안한 개념과 매개 요소들을 덧붙여 미메시스 개념을 확장시킨다. 이런 그의 노력은 삼중의 미메시스 개념으로 나타난다.

삼중의 미메시스란 미메시스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구조와 내적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미메시스는 전형상화(prefiguration)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리콥르에 따르면 우리들의 삶은 이야기로 엮여지기 이전에 이미 일정한 양식에 따라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상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의 행위는 언어를 비롯한 상징에 깊게 침윤되어 있어서 항상 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는 시간성을 지닌다. 시간의 질서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콥르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삶과 행위는 두 번째 미메시스를 통해서 이야기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두 번째 미메시스는 형상화(figuration)의 과정으로서, 앞서 첫 번째 미메시스의 단계에서 전형상화된 채 남겨져 있었던 행위를 이야기로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미메시스는 비로소 ‘이질적인 것들의 종합’을 성취해낸다. 세 번째 미메시스는 재형상화(refiguration) 단계이다. 미메시스의 전 과정이 이 단계에서 완성된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된 이야기가 독자의 세계와 만난다. 독자는 이야기가 지시하는 세계를 수용함으로써 자기의 세계를 다시 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서로 만나는 융합의 과정이다. 독자는 독자의 지평을 뒤흔들어 그를 변화시킨다. 허구는 ‘언어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위험’이다.

지금까지 리콥르의 이야기론을 중심으로 『시간과 이야기』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반드시 계획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단순히 논의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에 대한 언급을 나중으로 돌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면 리콥르의 입장에서 시간과 이야기는

어떤 관계인가. 리콰르는 왜 이야기를 운위하면서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리콰르가 이 저서를 시간론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책은 서양철학사에서 등장하는 유수의 시간론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콰르는 지금까지의 많은 시간론들이 개별적으로나 혹은 상호간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아포리아를 안고 있는지를 역설한다. 그렇다고 리콰르 자신이 스스로의 시간론을 전개함으로써 이와 같은 취약점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기존의 시간론이 지닌 한계를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따름이다.

둘째 이 책에서 시간의 위상은 이야기의 서술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야기란 삶과 행위의 재현임을 리콰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그 재현의 대상이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재현을 통해서 이야기가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리콰르는 이야기를 통하여 기존 시간론이 빠진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는 기존의 시간론이 시간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야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자. 리콰르는 왜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의 아포리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리콰르의 발언들은 시간을 이야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추후에 반성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서술(narrative) 기능의 구조적 동일성은 물론 모든 서술 작품들의

진리 주장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 갖는 시간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서술적인 작품이 전개하는 세계는 항상 어떤 시간적 세계이다. 또는 이 책 전체를 통해 자주 되풀이되겠지만, 시간은 서술적 방식으로 진술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되며, 반면에 이야기는 시간 경험의 특징들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다.³⁾

시간은 서술적 양태로 엮임으로써 인간의 시간이 되며, 이야기는 그것이 시간적 실존의 조건이 될 때 그 충분한 의미에 이른다.⁴⁾

위의 진술들은 시간이란 이야기됨으로서 인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결과론적 논외에 불과하다. 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시간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그와 같은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이 물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서 특별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문제를 천착했던가. 결국 리콰르가 이야기의 서술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시간은 삶 혹은 존재의 대체물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리콰르가 자신의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 시간론은 비록 수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후설, 하이데거 등과 같이 철학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되었다. 그가 이들의 시간론이 지닌 한계를 도출하는 방식은 독특하다. 각각의 시간론을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아포리아를 발견하거나, 두 개의 시간론을 서로 대결시킴으로써 각자의 모순을 찾아낸다. 리콰르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시간론이 시간의 문제를 사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고 지적한다.

3) 『시간과 이야기 1』, 25쪽.

4) 위의 책, 125쪽.

텍스트 해석학을 지향하는 그답게 리콰르는 사변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는 시간의 문제를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야기를 통한 해결로 선회한다. “시간은 이야기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시간과 이야기』에서 시간이 이야기와 짝을 이루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리콰르는 두 개의 기둥을 축조한 다음 허구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 안에서 시간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추적한다.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질 시간의 미메시스(imitation)는 시간의 전형상화와 형상화, 그리고 재형상화라는 삼중의 겹을 통과하면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허구와 역사가 시간을 형상화하는 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령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역(曆)을 매개로 한 우주론적 시간의 좌표에 각각의 사건을 결부시켜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허구는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므로 허구는 자유로운 상상의 변주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형상화할 수 있다. 역사는 순간-점으로 표상되는 우주론적 시간만으로는 과거의 사건을 살아 있는 현재로 만들 수도 없고, 그 결과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 불가능하다. 리콰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 이야기는 우주론적 시간과 현상학적 의식의 시간을 연결함으로써 역사의 시간을 형상화한다. 그에 따르면 시간은 이렇듯 허구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으로 변모됨으로서 비로소 인간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야기가 구성한 인간의 시간을 찾아 긴 여행을 준비하는 일이다.